



눈부시다, 성큼 온 가을

완연한 가을이다. 23일은 24절기 중 밤이 점차 길어지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추분(秋分). 초록 일색이던 담양군 봉산면 들녘도 어느 틈엔가 누렇게 물들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행기조종=광주시 소방항공대 박창순 항공대장, 이정곤 부기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람객 부를 필요없는 ‘13억 잔치’

■ 폐막 한달 남은 상하이엑스포 가 보니

지구촌 축제 무색 내국인 인산인해

중국 상하이 도심 황푸(黃浦)강변 양쪽으로 자리잡은 ‘2010 상하이(上海) 엑스포’단지(5.28km)는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관련기사 3면> 전시장 인근에 마련된 주차장은 관광버스로 가득했고 각양각색의 전시장과 기념품 코너는 입주의 여지 없이 만원이었다. 한때 상하이에서 가장 낙

후된 공단과 주거지역이었던 전시장 일대는 첨단 고층건물이 빼곡히 들어 서면서 상하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상이었다. ‘상하이는 당신을 환영합니다(上海歡迎)’라는 플래카드와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생활(城市, 讓生活更美

好·Better City, Better Life)’이라는 엑스포 주제, ‘사람 인(人)’자를 형상화한 동물 모양의 마스코트(海寶·하이바오)를 담은 깃발들이 공항 입구와 전시장으로 향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엑스포 단지 곳곳에서 물결을 이루며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몫했다. 엑스포 단지가 인파로 붐빈 탓에 전시장에 들어서는 것도 힘들었다. 전시장 입구에 도착한 뒤 검색대를 통과하기까지만 30여분이 걸렸다. 기습 시위나 테러 방지를 위해 검색대를 지키던 보안요원은 물, 라이터 하나도 예외없이 압수했다.

지난 5월 1일 개막한 뒤 23일로 146일째. 지금까지 5500만명이 전시장을 찾았다는 게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설명이다. 폐막(10월 31일)을 40여일 앞두고 찾은 지난 16일~17일에도 36만~39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장엔 외국인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관광안내소에서조차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시장 안내 지도 한 장에 의지

해 둘러보는 외국인 입장객이 많았다. ‘13억 중국인들만의 잔치’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내국인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다보니 평일에도 전시장에 세워진 국가관 등을 방문하려면 인내심은 필수다. 평범한 전시관도 1~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고 기다림에 지쳐 다른 전시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관객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박람회장 한 복판 2만㎡의 부지에 69m 높이로 세워진 중국관과 한국관, 일본·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등 중국인이 가보고 싶은 국가관들의 경우 줄이 길게 늘어선 2~3시간은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했다. 사정이 이러니 하루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몇 개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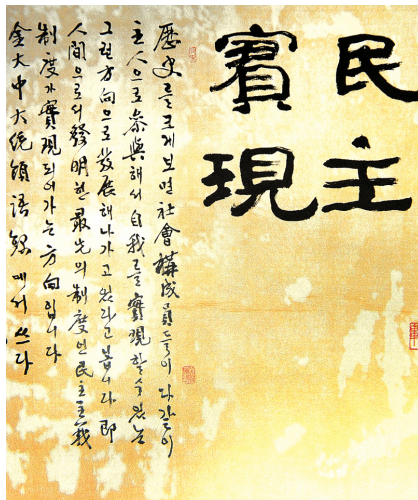
전시장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국에서 왔다는 한 관람객은 “인기 국가관을 관람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 입장했지만 빛, 음향을 이용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가 비슷비슷해 정작 30분 만에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실했다.

/상하이=김지을기자 dok2000@

알림

‘DJ 어록전’ 오늘 광주전 개막

10월 2일까지 DJ컨벤션센터



‘김대중 대통령서거 1주기 추모어록전’이 광주 시민들과 만납니다. 광주일보사는 김대중 평화센터와 공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서거 1주기 추모어록전’ 광주전을 24일~10월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김대중홀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어록전은 고(故)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한국을 대표하는 37명의 서예가들이 김 전 대통령의 주옥같은 글귀들을 예술작품으로 형상화 한 180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판매수익금은 김대중 평화센터에 기부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 9월24일~10월2일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 1층 김대중홀 전시실
- 주최 : 광주일보·김대중 평화센터
- 주관 : 김대중대통령 추모 어록전 행사위원회
- 후원 : 광주광역시
- 문의 : 02-720-1161(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011-275-4330

光州日報社

별관 논란 일단락되나 “4층 살려 본관과 연결통로로”

대책위 수정안, 광주시 긍정적

옛 전남도청 별관의 원형 보존을 주장해왔던 ‘5·18 사적지 원형보존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별관 일부 철거를 수용하는 대신 별관 4층을 살려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수정안이 정부가 제시한 별관 보존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데다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별관보존을 둘러싸고 지난 2년여 동안 이어져 왔던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광주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청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수정안>



서 대책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지난 7월 제시한 전당 보존안을 기본으로 삼되, 본관과 보존되는 별관 사이에 연결 통로를 만들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전체 길이 54m인 별관건물 중 본관과 맞닿은 24m는 철거하고 나머지 30m를 보존하자는 문광부의 방안대로 본관과 맞닿은 별관의 1, 2, 3층은 철거하도록 하는 대신 4층은 남겨두

어 당초 보존기로 한 별관건물과의 연결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같은 수정안이 ▲5·18 사적지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반영하고 ▲전당 출입구와 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물의 안정성 확보 ▲기본설계 취지(concept) 유지 ▲안전한 출입구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서구청장 후보 컷오프후 여론조사

민주당은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를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면접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한 뒤 시민과 당원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선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심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공천 방식을 이같이 결정했다. 공심위는 24일 공천후보 신청을 받은 뒤 25일 신청 후보들을 상대로 면접을 거쳐 3명으로 압축(컷오프)할 계획이다. 이어 공심위는 1차 컷오프를 통과

한 3명의 후보를 상대로 오는 27일께 TV토론회를 연 뒤 ‘지역구민 50%+당원 50%’ 여론조사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당 안팎에서는 전략공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지만,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많은데다 시민과 당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경축 자율형 사립고 지정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전국 최상위 **특수** 재단
▶전교생 수용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보다 폭넓은 **장학금 제도**
▶2009년 교과부 선정 **영어 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학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황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서남대학교가 의료·간호·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 합니다!

의료(의과대학) · 간호 · 보건계열 및 경찰행정법학 특성화대학!

2011학년도 수시모집/정시모집(가,나,다군)

- 의사국가시험 6년 100%합격
- 법학과 「사법시험 [51회] : 4명 합격
- ROTC : 182학군단 **아산** 설치 (학년당 27명)
- 간호학과 2009년~2010년 국가시험 100%합격
- 경찰학과 : 경찰 특 · 공채 207명 합격

(모집인원 : · 의예과 51 · 간호학과 77
· 물리치료학과 72 · 작업치료학과 48
· 임상병리학과 36 · 치위생학과 36
· 방사선학과 12 · 응급구조학과 29
· 경찰행정법학과 230 · 사회복지행정학과 160 등
총 1,957명)

서남대학교

SEONAM UNIVERSITY
www.seonam.ac.kr
TEL : (063)620-0030
(041)539-5511